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전강 스님(4)

만공,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보게

전강,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러는 말입니까

만공, 옳다, 옳다

어느 날 용성 스님은 만공 스님에게 던지시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이르시오" 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만공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였다.

용성 스님이 "양구(良久) 한참 말 없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다그쳐 묻자, 만공 스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뒤, 이 범거래(法去來)를 전해들은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은 만공 스님을 찾아 뵈고 "두 큰스님께서 서로 먹살을 쥐고 흥탕에 들어간 격입니까" 하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자네는 무엇이 라고 대답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스님께서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보게."

전강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러는 말입니까?"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만공 스님은 "옳다, 옳다" 하며 긍정했다.

위 문답에서 '어묵동정(語默動靜)'이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용성 스님이 '어묵동정을 벗어나서 말하라'고 한 것은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 본래면목을 드러내라는 뜻이다.

이에 만공 스님은 세존의 양구(良久)로 답을 대신한다. 세존에게 어느 의도가 묻혀 "말 있음은 묻지 않고 말 없음은 묻지 않습니다" 하니, 세존께서 양구(良久) 하셨다. 이에 의도

가 찬탄하되 "세존께서 대자대비하여 저의 미혹의 구름을 열어주어 깨달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내용의 공안이다.

원오 선사는 '세존 양구' 공안에 대해 "세존께서는 '기틀 바퀴(機輪)'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유(有)와 무(無)로 향하지도 않았으며, 일고 잃을 때도 떨어지지 않았고, 범부와 성인의 경지에도 얽매이지 않아, 양쪽을 일시에 품쪽 못하게 했던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용성 스님이 '세존의 양구냐?' 하는 다그침에, 만공 스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다. 양구를 양구라 하면 이미 양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답을 질문한 것을 저한테 물으십시오."

전해들은 전강이 패기 있게, 만공 스님을 찾아가 따진다. '세존 양구'로 답한 것에 대해 '그것이 양구냐?', '아니다' 하며 시비분별에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선지식 답치 못하다는 표현일까. 젊은 수좌의 기백에 내심 기뻐한 만공 스님은 어묵동정을 여의 전강의 답을 기다린다.

그의 대답은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러는 말입니까?" 라는 절묘한 연구이다. 어묵동정이 일어나는 성품(性品) 자리에는 본래 한 물건도 붙을 수 없지만, 어묵동정이란 그림자가 동시에 성품과 물이 아니다.

<금강경>은 "일체의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을 알면 그때에 바로 아래를 본다"고 했다. 이런 도리를 깨달으면 보이는 그대로가 실상(實相)이어서, 눈앞에는 청산이 가득하다(靑山在目前).

김성우 객원기자

“맑은 거울 같이 고요한 마음의 길로”

하남시 임제선원 철야정진 회향 현장



임제선원장 범현 스님이 거울을 들어 보이며 참선법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10월 20일 저녁 8시, 하남시 하산곡동 검단산 아래 자리잡은 임제선원(선원장 범현)의 법당에는 빨간 연등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넓은 주차장과 아담한 정원을 갖춘 임제선원 2층 법당에 들어서니, 숨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흐른다. 토요일이라 교통이 막혀 10분 늦게 참선법회에 참석,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다. 하남시에서도 다소 외진 곳, 그것도 늦은 밤에 참선정진을 위해 마음을 낸 불자들은 20여명. 다른 절과 달리 들직한 거서들이 태산처럼 앉아 있으니 든든하기만 하다.

모처럼 철야정진에 동참해 보니, 역시 집에서 혼자 하는 정진보다 훨씬 수월하다. 도반들이 정진의 절반이상을 해준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렇고?' 화두와 함께 40분이 순식간에 흘렀다.

이어 선원장 범현 스님이 참선법문을 시작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하남으로 선원을 이전한 뒤 처음 갖는 철야정진이다 보니, 낯선 불자들이 적지 않다. 필시 화두 드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수행자들이 있을 터이기에, 스님은 '명경(明鏡)'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비유하며 참선법을 일러준다.

"화두는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진 진실한 마음이므로 성성적적(惺惺寂寂) 또렷하고 고요함해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명경과 같이 맑고 고요한 마음의 곧은길로 가는 것이 '성성적적'인 것입니다. 마음거울과 화두의 심이 딱 하나가 되면, 세상만사가 거울 앞을 스쳐지나가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본래마음 즉, 진여자성은 '크고 둥근 거울(大圓鏡)'처럼 빛나서 분명하게 온 세상 사람마다 본래 구족하여 있지만, 한 생각 어긋남으로 인해 만 가지 모양으로 분별하여 나타나게 된다. 한 생각 어리석음으로 명경 위에 비치는 영상을 좇아가지 않고, 화두 일념으로 맑게 빛나는 명경을 회광반조 하는 것이 바른 공부 길이다. 때문에 스님은 "참선공부의 핵심은 해라야 생각하지 않는 도(道)에 통달하는 것"이라 말한다. "마음이 태허공(大虛空)처럼 크게 비어서 본래 한 물

건도 없음을 알면 해라야 생각하는 주관과 생각하는 대상의 경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착하고 악함도 없다"는 것이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본래 청정한 자기의 진여심경(眞如心鏡)만 생각할 뿐, 마음 거울에 비치는 경계와 남의 크고 작은 허물의 겉모습인 영상(影像)에 집착해선 안 됩니다."

자기의 진여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오여가 없는 줄 알면 경계를 대하여 일어나도 거

울 위의 영상과 같아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다. 여기에 무슨 끊을 망상이 있고, 자라날 보리(菩提)가 있을 것인가. 신수 대사가 "때때로 부지런히 뒤에서 티끌이 끼게 하지 말라"고 한 반면, 육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오(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고 한 게송이 바로 이것이다.

법현 스님은 생활 속에서 행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는 법을 자세히 설한 후, 이

변에는 보너스로서 몽산 선사(休庵主 坐禪文)를 원문으로 강독해 준다. 어느 절에서도 듣기 힘든 선법문이다.

"바깥 경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면세계 고요하고 동요 없음이 '좌(坐)'이고, 회광반조(廻光返照)로 언제든지 내면세계 돌아보고, 법의 근원 사무침이 곧 '선(禪)'이다."

늘 명경 자리에 머물러 회광반조하면 마음거울에 비치는 그림자(경계)에 속지 않아서 분별·망념이 없는 평상심으로 살 수 있다는 법문이다. 몽산 선사는 이렇게 좌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부처님의 선정(那伽大定)'에 들어 진여묘체(眞如妙體)에 결합할 것이 밝고 있다.

"부처님의 선정이란 정(靜)과 동(動)이 본래 없고, 진여묘체에 들어가면 불멸이고 불생이라. 보되 보지 아니하고 듣되 듣지 아니하며, 비어있되 비지 아니하고 있되 있지 아니하여, 크기로는 밖이 없는 태허계를 둘러싸고, 작기로는 안이 없는 밀밀계에 들어가니, 신통지혜 광명수량(光明壽量) 큰 기틀(大機)과 큰 작용(大用)이 무공무진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진여자성과 하나 되면, 삼계 속에 있으면서도 삼계를 벗어난 대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한 물건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大機)를 깨닫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다(大用)면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1시간가량의 참선법문이 끝나자, 다시 좌선이 50분 간격으로 이어진다. 새벽 3시 30분, 아침예불이 이은 108배 참회정진까지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신선하게 철야정진을 회향한 것은 범현 스님의 마음거울 법문과 1대 1 점검이 집합이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다. 길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 서로 가는 길도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성철 스님이 수좌들을 상대로 백일간 법문을 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선(禪) 도리를 알고 화두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범현 스님의 체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출가 전부터 나름대로 참선을 해온 범현 스님은 서울 대종사의 인가제자인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을 사범하며 비로소 제대로 된 참선 지도를 받았다. 30여년의 수선정진 끝에 '파자소암(婆子窠庵) 노파가 암자를 불태우다' 공안을 타파하고 종성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는 스승의 뜻을 이어 참사람 결사를 주도하며 임제종지(臨濟宗旨)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임제선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8~10시 참선실수,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유마법회, 둘째 수요일 마야법회, 넷째 일요일 범조인법회(임제회)를 연다. (031)792-8825

하남=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 분께는 언제나 지도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0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un@avatar21.com

수영계시판

- 선정삼매 수행-정명 스님** 임제선원 상임법사는 11월 10~14일 새벽 5일간 총복 과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2기 선정삼매수행사미터 위빠사나를 실시한다. (043)833-7789
- 유식(唯識) 법문** 경득-원주 박건주 기사는 매주 수, 오후 7~9시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결정장론(決定藏論)> <전식론(轉識論)> <무상사진론(無相思想論)> 등 유식 논서를 강독한다. (016)776-7131
- 12연기 통찰수행-한국위빠사나선원**은 11월 20일부터 매주 화, 오후 2~5시 모원 법사지도로 '모국 사야도의 12연기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을 연다. (02)612-5258
- 고연가 위빠사나-한국위빠사나운영위원회**는 10월 31~11월 11일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중등학교에서 고연가 위빠사나 명상 10일 코스를 개설한다. 신청은 이메일(dhammadkorea@hanmail.net)로만 가능.

설법 연수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형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대인불안, 공포해소, 표현력, 설법력, 호소력, 화술
◊인사말, 축하,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특강에 오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직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헌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세계적 단화 특·무명

발,마춤형 제작

● 가격 : 80,000원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색상 :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방한용 털신

● 가격 : 120,000원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 색상 : 진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삼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신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북타불교점 043)655-2525